

민천일보

제2831호

2024년 6월 16일 | 연중 제11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사제 성화의 날〉

입당송 | 시편 27(26), 7.9 참조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 예제 17, 22-24

화답송 | 시편 92(91), 2-3, 13-14, 15-16 (◎ 2가 참조)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은 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

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음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 2코린 5, 6-10

복음 환호송 |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 마르 4, 26-34

영성체송 | 시편 27(26), 4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하느님 나라가 오시며...

오늘 복음 말씀은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들려준다.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저절로 성장하고 내적 힘을 지닌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싹이 돋고, 이삭이 패고, 낱알이 맺히고, 추수할 때가 오면 추수하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을 이 세상에 완전히 자유롭게 실현하신다. 심은 사람은 인간이지만, 햇빛과 비를 내려주며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활동(힘)에 큰 신뢰를 드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하고 일치해야 한다.

‘겨자씨의 비유’는 상상력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들려준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농부가 심어 놓으면 크게 자라고,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의 모습도 자그맣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은 점점 뿌리를 길게 뻗어가고, 마침내 놀라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한다.

신앙인은 신뢰와 겸손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다. 예제키엘의 향백나무 새싹처럼(예제 17,22-24 참조), 겨자씨도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실 수 있는 나무가 된다. 사도들의 공동체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는 미약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공동체는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했다. 하느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그 씨앗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거저 주신다. 그 씨앗은 어떤

씨앗보다 작을 수 있지만, 기도와 성체의 영양분으로 싹이 트고 자라나서, 그 어떤 풀보다 크게 자라나는 ‘겨자씨’이고, ‘저절로 자라는 씨앗’이 된다.

하느님은 내 삶에서 이루는 결실이다. 그 시작은 보잘것없고 작지만,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도구로 쓰일 때, 크고 쓸모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와 겸손의 삶을 사는 씨앗이 될 때 우리 삶의 결실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지금 그리고 여기(Hic et nunc), 또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Carpe diem) 신앙인이 되자. 신학적 명제에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라는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겪는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이 시간에, ‘여기’에서 마주하는 현실에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염원하는 더 좋은 차원의 나라를 희망하며 추구해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홀로 완성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돕고 노력하며 하느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마르 4.1-9 참조) 그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에서 시작될 것이다.



백순기 힐라리오 신부
주안3동 본당 주임

경청하고 동반하는 교회를 위하여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과정 동안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태도 가운데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경청’입니다. 애초에 시노드가 ‘경청, 대화, 식별’을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도구로 내세운 것에서 시노드 교회는 그것을 도구이자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은 이야기를 공감하며, 공감한 이야기를 대화로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식별하는 과정은 함께 걷는 길을 나서는 이들이 지녀야 할 기초 체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경청은 ‘받아들여짐’이 필요한 시대의 요구이며, 소통을 그 심장에 두고 있는 교회가 지닌 역동성의 실현입니다. 그만큼 평소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귀 기울여 혹은 마음을 다하여 듣고(경청하고), 나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음(경청 받음)을 체험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 습니다. 흔히 커피 한잔하며 나누는 대화는 일상적인 표현에 그칠 때가 많았고, 테이블에 앉아 나누는 대화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중압감의 회의가 되곤 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시노드 여정을 체험한 이들이 고백하는 가장 강렬한 체험은 경청입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경청, 곧 경청하고 내 이야기가 경청됨을 느끼는 이중적 체험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경청이란 매우 인간적인 가치이며, 서로가 나누는 역동성으로서 서로를 더욱 북돋우는 기회였음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비록 교회의 구성원들도 다양한 ‘다름’을 지니고 있지만, 다르지 않음이 다름을 무한히 초월하는(트렌토 공의회) 체험을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청은 자신의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강요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나가고 있고, 더욱 심화시켜 가야 할 경청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들, ‘다양한 형태의 가난, 배제의 소외를 겪는 사람들’, 그리고 외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노인과 병자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고 그

들의 말을 들어주도록 시노드 1회기 종합 보고서는 본당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권합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말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며, 특히 ‘젊은이들, 여성들, 소수자들처럼 어떤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귀 기울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웁니다. 시노드는 일찍이 이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축성생활, 또는 평신도 단체들이 행하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이민자와 난민’을 향한 경청의 활동을 기억합니다.

경청은 무조건적 환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며 취하셨던 모습이며(필리 2,6-11), 우리를 커피와 회의 테이블 대신에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성령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역동성으로 초대합니다.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환대하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해 1회기 종합 보고서가 우리를 향해 건네는 질문입니다.

명형진 시문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교구 시노드 위원

갈갈수녀님



저와한

모든 정성은 자신을 성장하게 해요

냉담에 특효약, '주보'를 배달합니다

박광식 요셉 | 연희동 본당

기도 속에 늘 떠올리는 한 분을 물끄러미 그려 봅니다.

그날도 묵주기도를 하면서 청소 중이었습니다. 낮익은 자매님이 제 손에 들려진 묵주를 보셨는지 “성당 다니세요?”라고 물으셨고 저는 “네, 흑시?” 하고 답했습니다. 자매님은 “나도 전에는 성당을 다녔는데...”라는 말과 함께, 여운을 남기고 종종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비질을 멈추고 멀어지는 자매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냉담 환자에게 주보라는 약으로 치료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담자가 성당에 가고 싶어도 부끄럽고 쑥스러운 마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월요일마다 그 자매님께 주보를 가져다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자매님이 아닌 아드님에게 주보를 전달했는데, 아드님은 주보를 보고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도 할까?’ 하며 걱정했습니다. 한 해를 넘기던 어느 날, 그 자매님과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매님의 첫 마디는 “덕분에 주보를 잘 읽고 있어요!”였습니다. 또 제가 월요일마다 가져다드리는 주보가 은근히 기다려진다는 말씀엔 괜한 걱정을 한 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자매님은 1년이 넘도록 주보라는 약으로 상처를 매만지니 공공 얼어붙었던 영육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냉담으로 생긴 상처엔 어느새 새살이 돌아나고 있더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주님, 귀중한 이 자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저는 화살기도로 조바심에 안달 난 마음을 추슬렸습니다. 늘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니 떨리기도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매님은 자신이 냉담하게 된 계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모태신앙이던 자매님은 어느 날 부인병 중에서 암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삶을 비관하다 보니 냉담자가 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년간 개신교 기도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자매님은 우연히 마주한 감실의 빨간 불빛을 보고 자신을 돌아봤고, 어떤 날은 성당 주위를 배회하다 울컥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답니다. 이후 자매님은 월요일마다 제가 가져다드리는 주보를 돋보기를 끼고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와닿는 글을 읽고는 눈물을 흘렸다고도 했습니다.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숙연해진 저는 이젠 참회를 통해 성당에서 뵙기를 청했고, 자매님은 환한 웃음으로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벽찬 가슴으로 자매님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만난 자매님은 정신철 주교님께 받은 검은 묵주를 흔들며 저에게 지난주 교중 미사를 봉헌했고, 레지오마리아에 입단했다는 얘기를 환한 웃음과 함께 해줬습니다. 자매님의 그 모습은 고희를 넘긴 할머니가 아니라 마치 꾸밈없는 소녀의 모습 같았습니다. 또 아드님도 시간을 내서 성당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저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성취감에 흠뻑 취해 가슴이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쳐다보며 “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자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믿음이 없거나 마음이 식어 버린 환자들과 냉담한 사람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주보’라는 특효약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 ‘믿음과 은총’ 코너에 실릴 사진과 일상 신앙 수기를 모집합니다. 띄어쓰기 포함 1,600자 분량의 원고(A4)를 hongbo032@daum.net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선정 후 주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청년 성시간



청소년사목국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교구청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청년 성시간을 진행합니다.

청년 성시간은 청년들이 주님과 일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미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성체 조배와 신앙 나눔, 그리고 울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주제는 우측의 연간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성시간은 지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일정에 맞춰 해당 지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성시간을 통해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구 및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성시간을 거행할 수 있도록 청년 성시간 안내 공문에 「청년 성시간 안내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 사랑.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복음 | 요한 1,9-17

6/27

주제 | 나.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세 1,31

복음 | 루카 10,38-42

7/25

주제 | 구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15-19

복음 | 요한 21,15-19

8/29

주제 | 순교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이사 2,5

복음 | 마르 1,9-11

9/26

주제 | 묵주기도.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 2,19

복음 | 루카 2,15-20

10/31

주제 | 위령.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마태 18,1

복음 | 마태 25,1-13

11/28

주제 | 대림. “때가 차자...”

갈라 4,4 | 루카 9,51

복음 | 마태 1,1-17

12/19

청년 성시간은 매월 마지막 주(목) 20:00에 시작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참여 가능)

상기 안내된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월별 일정과 장소는 청소년사목국 인스타그램 @cainyouth에서 안내되는 게시물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2024년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청소년세계시민교육(기초과정) 참가자 모집

일시 7~11월 [총 10회기] (토) 오전 프로그램

장소 가톨릭청소년센터

또는 교육 대상 소속 기관(외부활동)

대상 초등 4~6학년 총 15명 내외

내용 SDGS 17개 목표 주제로 한 프로그램 활동



알려드립니다!



제72차 탈출기연수

일시 7/12(금)~14(주일) [2박 3일]

또는 7/7(주일) [1일]

장소 청년공간 엘피스,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 탈출기 그룹모임을 완료한 19~45세 청년

신청기한 6/21(금)까지 | 신청비 14만원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메) 노봉 요셉 신부 1971.06.20 선종

교구청

지구를 위한 미사와 환경특강

일시: 6/19 10:00 통진 성당
문의: 032-765-7255 생태환경사목부

경청대화모임

일시: 6/17(월) 19:00 노동자센터(경인로 671)
문의: 032-765-6970 정의평화위원회

교육 | 미사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성령세미나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일시: 6/17(월)~7/22(월) [6주간] 19:00~22:00
장소: 답동 주교좌 성당 내 문화관 3층 성령홀
접수비: 2만원(교재 포함)
문의: 032-761-6301

하느님 자비의 사도모임(천주교 사도직 팔로티하)

강의, 성시간, 미사
일시: 6/18(화) 14:00~17:00 사회사목센터 4층
문의: 010-3809-0200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Zoom) 교육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일시: 6/28~7/19 매주(금) 19:30~21:30 [4주]
접수: 6/23까지 / 비용: 4만원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이세라 연구원
주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문의: 02-744-084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여름특별피정(우도 포함):
7/12~14, 20~22, 25~28,
8/1~4, 6~8, 10~13, 24~26
제주교구 성지순례(추자도성지 포함): 7/1~4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바로로말과 함께하는 젊은이 피정

서울 본원: 6/22(토)~23(주일), 26(수)~27(목)
여주: 7/13(토)~14(주일)
대상: 20~30 미혼 여성
문의: 010-7251-1908

가정회복은혜의 낮피정(고해성사, 상담)

일시: 6/17(월) 13:00~16:30(말씀, 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제주 먼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우도 자유 일정 포함: 7/25~28, 8/2~5, 14~17
생태순례: 7/19~21, 8/21~23, 9/1~3, 20~22
추자도 성지순례: 9/7~10, 10/7~10, 13~16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7/18(목) 18:00~21(주일) 16:40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지도: 황정연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예수회)
피정비: 30만원(농협:301-0197-3172-01)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ICPE Jesus시그널피정 4차

일시: 7/6(토)~7(주일) 성앵베르센터
대상: 가톨릭 미혼 청년 만 35~45세
문의: 010-9271-9114 (ICPE카톨릭친)

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월례미사

일시: 6/17(월) 10:00 썰기도, 11:00 미사
장소: 교구청 내 성모순례지
주관: 인천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문의: 010-8702-5185

6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6/18(화) 14:00
장소: 도화동 성당

이승훈 베드로 성지 후원회 미사

일시: 6/20(목) 15:00(14:20 묵주기도)
장소: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장수동 산135)
문의: 032-765-6916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일시: 6/25(화) 11:00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6/20(목) 14:00
장소: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2-3673-2525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

일시: 6/22(토) 11:0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문의: 032-761-3992

송태일 안셀모 신부 은경축 축하 미사

일시: 6/23(주일) 11:00 상동 성당
문의: 032-653-7322 사무실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판) 심포지엄

일시: 6/24 15:30~21:00
6/25 9:00~12:30
장소: 인천가톨릭대학교 강화캠퍼스 대강당
주최: 한국가톨릭신학학회
주관: 인천가톨릭대학교
문의: 032-930-8014

모집 | 일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부개2동 성당 추모관 위패 신청자 모집

·천주교 신자면 누구나 가능(타 교구 신자 가능)
·돌아가신 분은 타 종교, 무교 상관없이 가능
(살아 계신 분도 신청 가능)
매월 2, 4주(수) 10:00 위패 연령을 위한 미사 지향
신청금액: 1명(2백), 2명(2백), 3명(3백), 4명(4백)
문의: 032-505-2048

요양보호사 채용

[4일] 근무, [2일] 휴무
(9:00~18:00 공휴일 휴무)
기숙사 1인실, 230만원 이상
문의: 031-589-0102 가평꽃동네 평화의 집

산타크로체(성심자가) 합창단 단원 모집

교회음악(미사곡, 오라토리오)에
관심있는 교우분들을 기다림
연습: 매주(수) 19:30 [2시간]
장소: 동춘동 성당
문의: 010-9678-4201

솔샘나우리센터(심리정서치료)

놀이, 모래놀이, 치료놀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대상: 아동, 청소년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문의: 032-872-2731, www.solsam.or.kr

24학년도 여름학기 미래인재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성음악 아카데미(성악, 오르간, 합창지휘[그룹/개인]),
예술교육(이론 및 미술)
접수: 5/20(월)~6/30(주일)
수업기간: 7~8월
장소: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
문의: 032-830-7094
<https://mirae.iccu.ac.kr>

성가 발성 노래 교실

다 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시: 매주(목) 18:30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10-9842-8818

예수성심 인천천교회(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후원문의: 010-6680-0692

해외 성지순례

8/19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동반자 할인)
10/7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13일] (직항)
10/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5만원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6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발자취)
[10일] 440만원
10/9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 알프스 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국내·외 성지순례

8/18 베트남 하노이·사파 [5일]
8/26 발칸, 메주고리에 [12일]
9/2 베트남 다낭 [5일]
9/23 홍콩, 마카오 [4일]
(인천·수원 출발) 제주·한국성지167 모집중
문의: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일본 성지순례 3박 4일

도쿄, 오사카, 아키타, 북해도, 나가사키 120만원
문의: 010-3645-9028

해외 성지순례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성지순례:
11/11(월) 출발 [10일]
·베트남 다낭, 짜케우, 라방 성지순례: 9/9~13 [5일]
문의: 010-8705-0319 최형베드로

국내·외 성지순례

7/10(수), 27(토) 의정부교구: 주교좌 성당, 양주성지,
남종삼 요한 묘, 춘천교구(포천순교성지, 광암 이벽의 묘)
7/13 희망의 순례자: 베타성지, 명예목, 진안리, 봉암리
[1차] 7/1~7, [2차] 7/8~14
중국 성지순례: 백두산
9/6(금)~10(화) 베트남 다낭 성지순례
10/21~25 나가사키, 고토
11/5~13 과달루페, 마추피추 [9일]
문의: 010-9200-3532

대천해수욕장 요나 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절,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net/>

순례 | 기타

성모발현 성지순례

베트남 다낭 라방 성지 7/14 출발 [5일]
대한항공, 라방 성지 숙소 1박 포함
대표: 김명윤 베네딕도
문의: 010-5909-5997

해외 성지순례

8/16 말레이시아 페낭, 말라카 순례 [6일] 225만원
9/23 마카오 도보순례 [4일] 139만원
9/23 이집트 성가정 피난 순례 [13일] 595만원
11/5 아말피, 시칠리아 트레킹 순례 [11일]
12/19 쌍둥이 인도 신부와 함께하는 남인도 순례 [13일]
595만원
문의: 02-732-4578 김흥민 마태오

성소모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 수도회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 모임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문의: 010-5195-3217 성소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6월 25일(연중 제12주간 화요일)은 한
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제정 “민족의 화해
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이날 미사 중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
랑 안에서 서로가 화해하여 하루 속히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성껏 기
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6/17~25)

지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가톨릭 기도서 109쪽 / 매일미사 180쪽)

방법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 17일(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화심
- 18일(화) 상호 존중
- 19일(수) 평화의 일꾼
- 20일(목)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북향민)

- 21일(금) 세계 정치 지도자
- 22일(토) 남북교류협력
- 23일(주일) 과도한 군비경쟁 중단
- 24일(월) 한반도 비핵화
- 25일(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기도 자료

2024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

“가톨릭교회와 평화교육”

6/20(목) 14:00~16:30 서울대교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참여 신청